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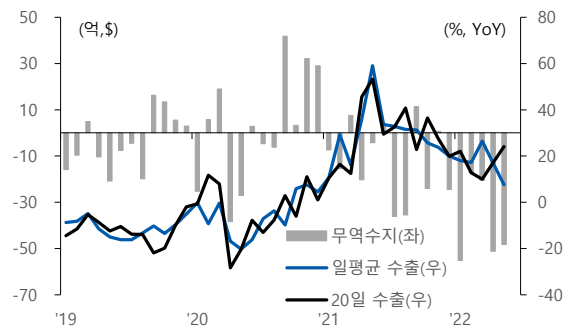


한국 교역지표 동향, 숨 고르기를 하는 환율

1. 20일 수출입 동향, 중국과 교역 변화

- 한국의 20일까지 전년비 24.1% 증가. 다만 일평균 수출액 증감을 둔화되었고, 무역수지는 여전히 큰 적자.
- 한편 지난달 상해 봉쇄 여파로 인해 줄어들었던 중국향 수출액은 전월비 기준 2.9% 증가. 4월 급감했던 중국향 수입액도 전월비 16.7% 증가. 국내 수요 증가보다는 멈춰있던 물류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
- 모멘텀을 확신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중국의 대외 공급 여건이 개선된 시그널로 판단.

한국의 20일 기준 수출입, 일평균 수출액 추이. 높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무역수지는 여전히 큰 적자 확대



자료: 관세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숨 고르기를 하는 원화와 위안화

- 위안화는 상해 봉쇄 완화 기대감과 리커창 총리의 적극적 경기 대응 스탠스가 확인되며 약세 압력 완화.
- 봉쇄 리스크는 경기 둔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기 때문에 시장의 안도가 단기적으로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위안화와 동조화 되어 오버슈팅한 원화의 경우도 5/12일 고점 대비 -1.81% 하락하면서 고점을 통과.
- 이번주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역시 원달러 환율에 발생하는 약세 압력을 진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국내 단기 금리 상승은 스왑포인트 반등에 영향, 원달러 환율에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20일 수출입 동향, 중국과 교역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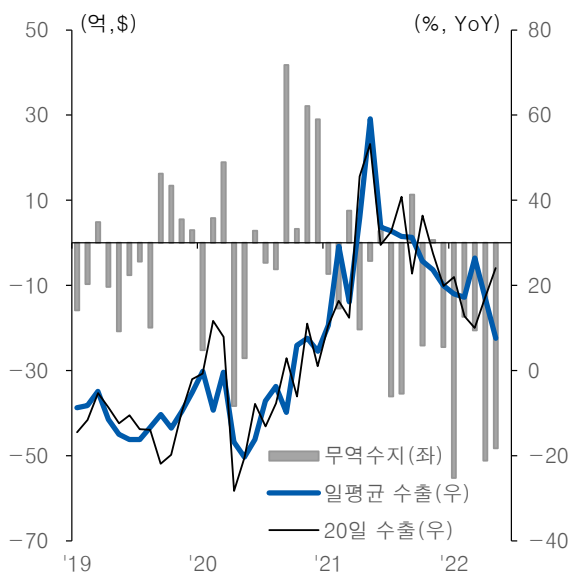
공급망 차질 장기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로 한국의 수출 경기 둔화 우려도 지속되고 있지만 5월 20일까지 전년대비 +24.1% 증가하며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다만 일평균 수출액 증감률은 둔화되었고, 무역수지는 여전히 큰 적자폭을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향 수출은 전년대비 +27.6%, EU향 수출은 +25.0% 증가하며 견조한 대외 수요가 확인되었다. 제품별로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출단가를 끌어 올리며 석유제품 145.1%, 철강제품 25.6% 등 수출액 증가율이 크게 나타났다. 반도체 13.5%, 자동차 17.5%, 자동차 부품 8.3% 또한 견조한 수출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달 상해 봉쇄 여파로 인해 줄어들었던 중국향 수출액은 전월대비 기준 2.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더불어 지난 4월 급감했던 중국향 수입액도 전월대비 16.7% 증가하였다. 국내 수요 증가보다는 멈춰있던 물류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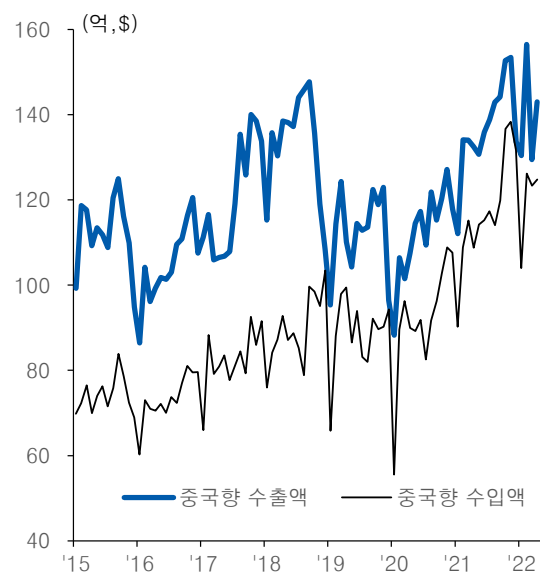
모멘텀을 확신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중국의 대외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시그널로 판단된다. 또한 중국의 데이터도 종합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 단편적으로 글로벌과 한국의 대외 경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생각된다.

[차트1] 한국의 20일 기준 수출입과 일평균 수출액 증감률 추이. 높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무역수지는 여전히 큰 적자



자료: 관세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대중국 수출은 한국 전체 수출의 25% 차지. 지난 4월 급감했던 교역 규모는 5월 지표에서부터 회복 기대



자료: 관세청,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숨 고르기를 하는 원화와 위안화

위안화는 상해 봉쇄 완화 기대감과 리커창 총리의 적극적 경기 대응 스탠스가 확인되며 약세 압력이 줄어든 모습이다. 봉쇄 리스크는 경기 둔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기 때문에 시장의 안도가 단기적으로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달려 수급 환경과 실물 경제 펀더멘털 상 위안화는 약세 분명히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추세적 가치 전환을 이야기 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안도감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위안화와 동조화 되어 오버슈팅한 원화의 경우도 5월 12일 고점 대비 -1.81% 하락하면서 고점을 통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주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역시 원달러 환율에 발생하는 약세 압력을 진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컨센서스가 지배적인 상황이며, 이창용 총재의 발언과 전망치 수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지난 빅스텝 발언과 같은 매파적 스탠스가 재차 확인된다면 국내 단기 금리 상승으로 스왑포인트 반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원달러 환율에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트3] 봉쇄 완화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위안화와 스왑 내재 금리는 소폭 안정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과 고물가 대응을 위한 전망
치 조정과 스탠스가 예상됨에 따라 환율 약세 압력 발생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